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쓰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 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 밧기 울어 예는 저 시
내야
므음 호리라 *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외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 화자가 간신의 횡포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 유배를 간 상황.

※ 임 : 임금

외기러기, 시냇물 : 감정이입의 소재

여남은 일 :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일 이외의 일. (부귀영화, 개인의 안녕을 위한 불의-간신의 횡포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일 등.)

※ 핵심 정리

지은이 : 윤선도(尹善道)
갈래 : 연시조
성격 : 우국가. (견회 - 마음을 달랠의 의미로 견회요는 시름을 달랜다는 노래)
표현 : 반복법
배경 : 조선 후기. 작자가 30세 때 권신 이이첨(李爾瞻)의 횡포를 상소하였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임
특징 : 시어(詩語)의 반복을 통해 의미와 운율을 동시에 강조했고, 작가의 강직한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남.
제재 : 유배지에서의 정회(情懷)
주제 : 연군(戀君 : 임금을 그리워함), 자연과 더불어 수양하는 은둔생활, 억울한 심정의 고백, 임금에의 그리움, 사친(思親) 및 충효(忠孝) 등이 각 수의 주제
구성 : 연시조 5수
제 1 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에 맞도록 살아가겠다는 강직한 삶.
제 2 수는 자신의 행위가 임금을 위한 일이었으며, 임금의 현명한 판단을 갈구한다는 결백한 마음의 호소
제 3 수는 작자가 귀양 와 있는 곳의 시냇물을 작자의 마음에 비유하고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
제 4 수는 산·물·외기러기에 작자의 모습을 투영하여 아버이를 그리는 정을 나타냄.
제 5 수는 아버이를 그리는 효와 임금을 섬기는 충은 일치한다는 깨달음
출전 : 고산 유고(孤山遺稿)

※ 내용연구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그르다고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자신이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할 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내 몸의 해을 일'은 나라와 임금을 위한 우국충정을 뜻한다.)

그 밧기 여남은(다른. 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나라고 해서) 모랄 손가(내가 한 일들이 분수에 넘치는 것임을 나라고 모르겠는가마는)

이 마음 어리기도(어리석은 것도) 님 위한 탓이로세(이를 감행한 어리석음은 임금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내 일'은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아무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추성(楸城 : 함경북도 경원(慶源)의 별칭) 진호루(鎭胡樓) [시적 화자가 슬픈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공간] 밧기(밖에) 울어 예는(흘러가는) 저 시내[감정이입의 대상으로 임금에 대한 심없는 충성심을 다짐]야

므음 호리라(무엇을 하려고)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임금을 향한 내 마음을 좇아 / 따라서) 그칠 뉘(때)를 모르나다(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본받아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을 걱정하고 연모하는 화자의 마음이 변함 없이 영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외(山)흔 길고 길고 물(산'과 '물'은 아버지와 시적 화자 사이에 놓인 장애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초장과 중장은 먼 함경도 땅으로 귀양가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난 부분이다. 초장에서는 대구법과 반복법으로 그 길의 고달픈 여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장에서는 반복법으로써 부모를 걱정하는 효심을 표현한다.)

어디서 외기러기(감정이입 대상)는 울고 울고 가느니(작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부모의 곁을 떠나 먼 북방으로 귀양을 가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효를 실천할 수 없게 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과 서글픔을 한 마리 기러기의 쓸쓸한 모습에 이입하여 표현한 부분이다.)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만드셨으니)(초장과 중장은 직언을 하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 귀양을 가게 되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칠 줄을 어찌 몰랐을까마는,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늘이 만든 것이니, 직언을 하고자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 자신의 행동이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는 표현이다.)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그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부모 걱정을 안 한 것이 불효가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잊고 편안히 살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불효라는 표현이다. 충을 위하여 효를 희생한 것이 되어 버린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표현이다.)

이해와 감상

1616년(광해군 8) 윤선도(尹善道)가 지은 시조. 5수의 연시조로 《고산유고》에 전한다. 당시의 권신이던 이이첨(李爾瞻) 등의 죄를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다가 도리어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어 30세 때에 지은 작품이다. 제1수는 작자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슬프거나 즐거거나, 남들의 말이 옳다고 하거나 그르다고 하거나간에 자신의 신념에 맞도록 자신의 일을 갈고 닦을 뿐이지 그밖의 결과 여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념에 불타는 내용이다. 제2수는 병진소의 결과로 유배오게 되었으니 임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를 망령되었다고 한다.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일을 하였으니 자기 마음을 어리석다고 일단 수긍한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을 위한 일이며,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임금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다. 제3수는 작자가 귀양 와 있는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흐르는 시냇물을 제재로 한 것이다. 이 시냇물은 울면서 흐르며, 게다가 밤낮으로 그치지도 않는다. 이처럼 끝없이 체음(涕泣 :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하는 시냇물이야말로 임(임금)을 향하여 쉬지 않고 울며 지내는 작자의 마음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제4수에서는 길고 긴 산, 멀리멀리 흘러가는 물, 울고 가는 외기러기에 작자의 모습을 투영함으로써 아버이를 그리는 정을 살뜰히 드러내고 있다. 제5수는 효를 충과 동일시하면서, 아버이를 그리는 효는 임금을 섬기는 충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부정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군신관계는 부자관계보다 선행한다는 유학도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작품에는 한결같이 젊은 시절의 작자의 모습과 패기가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임금을 향한 충절과 아버이를 생각하는 효성이 유학도의 의연한 감정으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참고문헌> 尹孤山研究(李在秀, 學友社, 1955), 孤山尹仙道研究(文永午, 太學社, 198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 * 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A]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
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
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갈래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물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
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
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
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웃소매에 스며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과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 수>

내 일 망령된 *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쓰는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姑樓) * 빛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B] 으음 호리라 * 주아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 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 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 수>

- 윤선도, 「건희요(遣懷謠)」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으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 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 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 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 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 수의 '추성'은 제4 수의 '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 수의 '뜻'은 제5 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 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 수의 '내 몸의 해을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가 복합 [19-24]

가 김동명 파초

작품해설 : 원산지인 남국 을 떠나 추운 곳에서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파초에 화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파초와 화자는 조국 을 떠나 겨울 을 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자가 파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 위안 동류의식과 연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파초를 부르는 호칭이 너 에서 우리 로 바뀌고 있다는 점 화자가 파초를 향해 하는 행위의 변화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연대를 감안할 때 겨울 은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나가려는 태도

나 김광균 수철리

작품해설 :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 노을에 젖은 비석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경으로 깔린 노을 과 황혼 은 이러한 비애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다 여윈 흰비 는 무형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화자는 누이의 영혼이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제는 누이가 다시 함박꽃 처럼 눈을 뜰 수 없다는 인식으로 비애와 서러움에 젖고 있다.

주제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낀 감회

다 윤선도 견회요

작가인 고산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제 수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고 제 수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하소연이 제 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변함 없는 충성심이 제 수에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 수에서는 충 과 효 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

19. 비판적 사고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나 의 화자는 누이동생 의 무덤을 찾아 누이동생을 추억한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흙 속에 묻혀 있으며 나즉 히 불려도 함박꽃처럼 다시 눈을 뜰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갈림길에서 화자는 서러움에 젖어 있는 것이다 다 에서 북방에 유배중인 화자는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길고 긴 뉘 멀고 먼 물로 표상되는 아버지와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안타까운 그리움을 울고 가는 외기러기 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 와 다 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 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 에는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끼는 감회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찾기도 어렵다 ② 가 에서 파초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는 않고 있으며 다 시는 자연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 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가 와 다 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된다고보다는 화자의 마음이 정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⑤ 가 다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21. 비판적 사고 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해설 A에서 소낙비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파초 의 정열을 나타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샘물 을 발등에 붓는다 는 화자가 파초에 대해 갖는 연민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에서 울어 예는 시내 는 임 향한 내 뜻 과 정서를 구체화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B를 문답 형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대상인 시내 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의지의 투영으로 보아야 한다 ③ ④ ⑤ 대구 반어적 표현 어조 변화는 두 부분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24. 창의적 사고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구조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 2수로 보아 명령된 내 일 은 임 위한 탓 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종장에서 보듯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수의 내 뜻 은 임 향한 것이기에 내 일 을 내 뜻 에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제 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는 제 2수의 내 일 을 두고 아무가 임에게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제 3수의 추성 은 제 수의 길고 긴 뉘 멀고 먼 물로 인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공간임이 드러난다 ④ 제 4수의 뜻 의 대상은 아버지 이다 제 5수에서 화자는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하여 효 의 대상을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제 5수의 임금 향한 뜻 은 임금에 대한 충 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 1수와 관련하여 보면 임금을 향해 내 몸의 해를 일 만을 닦고 닦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천인 : 천 길이라는 뜻으로, 매우 높거나 깊음을 이르는 말.

(나)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를 일단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모 |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른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
 다. (제3수)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괴 불효(不孝)인
 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가)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
 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
 으로
 자폭(自暴)의 잔(蠶)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뫼를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
 에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④ 화자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15. (가)와 (다)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저는 제 뜻을 충분히 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요.
- ② (다) : 자신이 한 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보잘것없는 과거라도 초라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 ③ (가) : 이유야 어떻든 이제는 지난날에 연연하지 않고 열렬히 살려고 합니다.
- ④ (다) : 그래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힘들더라도 지금 품은 뜻은 잃지 맙시다.
- ⑤ (가) : 네. 굳게 살다 보면 당신처럼 삶을 굴곡지게 하는 외부적 조건을 없앨 수 있겠지요.

18. (다)를 유배지에서 쓴 글이라고 할 때, <보기>와 관련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아뢰나이다. 신의 아버지는 저의 상소를 금하려 한즉 국가를 저버릴까 두렵고, 받아들이려 한즉 그 아들이 죽음으로 나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명하니 앉았고 묵묵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상소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는 신의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슬피 목이 메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비로운 임금님께서서는 비록 신을 무거운 법에 놓아 주시되 이 때문에 늙은 아버지에게 화(禍)가 미치게 하지 마시면 영원히 천하 후세에 충신 효자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 (다)의 화자가 유배당한 원인이 된 상소문의 일부 -

- ① 제1수에는 아버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상소문을 올리게 된 화자의 성품이 나타나 있군.
- ② 제2수에는 무거운 법을 감수하더라도 상소를 올리는 이유가 나타나 있군.
- ③ 제3수에는 유배를 당했어도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하로서의 마음이 드러나 있군.
- ④ 제4수에는 아들을 걱정하던 아버지를 유배지에서 그리워하는 아들의 심정이 드러나 있군.
- ⑤ 제5수에는 충과 효를 모두 중시하는 화자의 생각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군.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13~18]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출전> (가) 김기림, 「연륜(年輪)」
 (나) 김종길, 「바다에서」
 (다)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⑤ (가)의 화자는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초라하고 덧없는 삶을 버리고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내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하며 신념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의지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갈등이 보인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④ (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해설] ① (가)는 '욕지'와 '섬'의 대조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바다'와 '하늘'의 대비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은 '시어의 대립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이다. ② 반복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것이 대상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반어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나)에서는 색채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자연은 비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15. [출제의도] 화자의 상황 파악하기

[해설] ⑤ (다)의 화자는 현재의 굴곡진 삶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으나, 유배와 같은, 현재의 삶을 굴곡지게 하는 외부적 조건을 제거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①~④ (가)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연륜', '초라한 경력'으로 비유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 지금까지의 삶을 떨쳐내고 이상적인 공간, '섬'으로 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열렬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다)의 화자는 지난날의 삶이 '망령'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것이었으며(제2수),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우국충정(憂國衷情)'을 변함없이 행할 뿐이라는(제1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①~③의 진술은 (가)와 (다)의 화자가 대화 상황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다)의 화자는 <제1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념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④의 진술도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시상 전개 과정 파악하기

[해설] ④ 2~3연(B)에서 화자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4연(C)에서는 과거를 청산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상으로는 4연도 현재이다. 따라서 4연이 2~3연과 시간적으로 역전 배치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① 화자에게 울음을 가져오는 고통은, 삶을 '해로'로 빚대면서 '일렁일지라도'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홀로'라는 인식은 화자가 '나'의 '하늘'을 '꿈' 꾸겠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울음'과 같은 감상적인 태도가 '옛날은 / ~ 띄워보내고'에서 청산되고 있다. ⑤ 현재 인식, 과거 청산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낸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비교하기

[해설] ③ (나)의 '물보라'는 화자를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의 <제2수> '아모'는 '임'에게 화자에 대해 험뜯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물보라'와 마찬가지로 화자를 고난과 시련에 놓이게 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하기

[해설] ③ (다)의 <제3수>는 외로운 유배지에서 느끼는 '연군의 정'을 흘러가는 '시내'에 감정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즉 화자는 끊임 없이 흐르는 시냇물에 빚대어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제1수>에는 스스로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 있다. ② 상소를 올리고 유배를 당하였으므로 상소를 올린 일이 무거운 벌을 감수하면서도 임금을 위한 일이었다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④ <제4수>에는 유배지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 ⑤ <제5수>에는 임금을 섬기는 마음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밖에 울어 예는 저 ㉠스내야
므슴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좇아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되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았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
- ②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42. <보기>는 윗글의 창작 배경과 관련된 글이다. 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윤선도는 권신 이이첨의 횡포에 대해 탄핵 상소를 올린 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윤선도의 아버지마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실 윤선도의 부모는 이이첨의 세도로 보아 화가 미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윤선도가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만류하였다. 하지만 윤선도는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상소를 올린다. 그로 인해 부모의 곁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다.

- ① <제1수>의 '해울 일'이란 불의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② <제2수>의 '아무'는 화자와 그 가족에게 화가 미치게 한 사람들이겠군.
- ③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은 아버지의 관직 복귀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겠군.
- ④ <제4수>의 '어버이 그린 뜻'은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겠군.
- ⑤ <제5수>의 '임금을 잊으면'은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상소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군.

4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 ② ㉠과 ㉡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화상의 매개체이다.
- ④ ㉠은 화자를, ㉡은 '어버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 ⑤ ㉠은 공간의 이동을, ㉡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41 ~ 43] (고전시가) 윤선도, 「견회요」

이 작품은 권신 이이첨이 국정을 농단하자 성균관 유생인 윤선도가 상소하였다가 귀양 가게 되어 귀양지인 함경도 경원에서 지은 연시조이다. 다른 사람들의 희락이나 시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강직한 성품,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굳은 정신, 임금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 「견회요」는 ‘마음을 달래는 노래’라는 뜻이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작품은 연시조로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법과 반복법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복직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제1수>의 ‘해올 일’은 우국 충절로, <보기>의 자료에서는 나라를 걱정하여 상소를 올린 일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제2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으로, ‘아무’는 자신을 포함하여 귀양가게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귀양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느낄 수 있다. ⑤ <제5수>에서는 충을 효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여 임금을 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이해한다.

‘시내’가 울면서 흘러가는 모습은 임금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고, ‘외기러기’는 아버이를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